

26' 하반기 Partners for Africa 사역현장 소식

아프리카를 사랑하는(PFA) 선교 동역자 여러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기도와 물질로 함께해 주신 모든 동역자 여러분께 멀리 아프리카에서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세상이 전쟁과 재난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저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맡겨 주신 자리에서 매일 최선을 다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교회와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사역의 현장에서 매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이 저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도 참으로 바쁘고 다양한 사역의 일정을 보내온 것 같습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가 저희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번 하반기 사역보고를 통해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사역의 현장과 감사한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기도제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잠시나마 저희가 섬기고 있는 아프리카의 사역 현장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행하고 계신 일들을 함께 기뻐해 주시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0세 생일을 26명의 단기선교팀으로 깜짝선물을 받았습니다.



P.F.A. Nkope Mission Center

교회와 사택 공사가 한창입니다. 오는 11월에 헌당예배와 함께 새로운 장소에서 사역하게 됩니다. 기도로 함께해주세요

망코치 은꼬페 사역소식

지난 1년 동안 워싱턴 선교사의집 앞마당에서 방과후 사역과 교회사역을 이어왔습니다. 이제 감사하게도 예배당이 완공되면 아이들과 함께 더 넓고 쾌적한 공간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함께 찬양하며 성경공부를 가르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부족한 환경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하며 복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새로운 예배당을 통해 더 많은 아이들이 주님을 알아가고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재정안에서 완공되도록 기도 해주세요



오랜만에 아프리카의 아들 요한이와 손의 가정 소식을 전합니다.

20년 전, 요한이와 손이 저희 가정의 식구가 되어 함께 생활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신학교에 들어가 4년의 과정을 마치고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목사와 선교사로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두 사람 모두 세 자녀의 아버이자 한 가정의 남편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목회자와 선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참으로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손은 우간다 선교사로 파송후에 초등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며, 교육과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역에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는 남아공에서 오랜 시간 *Josua Church* 부교역자로 섬기며 쌓아온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자신의 모국인 짐바브웨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는 11월이면 짐바브웨로 돌아가 새로운 선교의 길을 시작하게 됩니다.

20년 전 함께했던 두 어린 아들이 이제는 한 가정의 가장이 되고, 목사와 선교사가 되어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낍니다.

새로운 사역을 시작하는 요한 목사와 그의 가정, 그리고 짐바브웨에서의 새로운 선교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 목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그 땅에 복음의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선교사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20년 동안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모든 걸음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GP USA 선교회 이사회 남아공 사역지방문....

멀리 LA 와 Washington DC 에서 G.P 이사장님과 대표님과 이사님들께서 남아공을 방문해주셔서 신학교와 주일 예배를 섬겨주시며 특별히 이곳 남아공 케이프타운 한인선교사들을 섬겨주셔서 저희에게는 큰 힘이되었습니다.





파송기도 말라위 단기선교팀

26년도 26명의 새누리교회 단기선교가 올해도 어김 없이 말라위 선교를위해 힘찬 발거름을 ...

산호세 새누리교회 2026년 26명의 단기선교팀이 30시간이 넘는 비행시간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어김없이 말라위 땅을 밟았습니다.



매년 공항주차장 같은장소에서 웰컴~



사역도 식후경이지요?..



준비운동?



내일 부터 시작되는 영적전쟁을 위한 작전회의를 시작으로



3일동안 300명의 아이들과 VBS로



마을 노방
전도로, 내
적치유로,
성령의 단
비가 이곳
에....



기도외는...





이땅의 주인 이 신 예수님을



영원

찬양합니다

“Paratz!” 하나님의 돌파를 외치며!

“Paratz! 하나님의 돌파!”

이 구호를 힘차게 외치며 지난 5월 19일부터 28일까지 이곳 말라위 땅을 복음과 함께 밟아주신 26명의 새누리 단기선교사님들께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땅의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귀한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헌신해 주셨습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이곳까지 찾아와 함께 땀 흘리며 섬겨주신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을 저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흘린 땀과 눈물,(말라위 오시면 왜이리 우시는지?) 그리고 기도로 드린 헌신이 이 땅의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으로 심겨졌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은 이 땅 위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것입니다.

말라위까지 와서 함께해 주신 26명의 단기 선교사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Paratz! 하나님의 돌파!”

우리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어떠한 상황가운데서도 승주찬!”



27년에도 승주찬을 외치는 소리를 이곳 말라위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하면서...



말라위 우물 사역팀 도착

저희 말라위 PFA 의 첫 우물사역을 위해 LA 에서 귀한분들이 큰 선물을 들고 먼 이곳 말라위까지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든 먹이고 싶고 주고 싶어서... 주님 감사합
니다, 줄 수 있고 나눌수 있어 행복합니다..



Hungry Project 를 마친후...

올해 PFA Hungry 나눔행사를 마친 후, 땅에 흩어진 옥수수알을 하나하나 줍고 있는 한 여인을 아내가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나눔행사가 끝난 후 우연히 저희 센터 앞을 지나가던 중, 땅에 떨어진 옥수수알을 주워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내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마침 감사하게도 나눔행사 후 남아 있던 옥수수 50kg 한 자루가 있었습니다. 다음날 그 여인에게 남은 옥수수를 나누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작은 한 자루의 옥수수였지만, 그 순간 우리에게서 주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마 14:16)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이며 사랑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말라위 호수는 아프리카에서도 세번째로 큰 호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 마다 물부족 으로 어려움을 호소 하고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매일 물을 길어 와야 하는 어머니들



학교등교시간에 식수를 가지고 가는 식수 당번아들

식수해결을 위해 마을에 작은 우물
을 선물 했습니다.



새로운 우물설치로 인해 즐거워하는 마을주민들



시카고에서 나승은 목사님께서 딸과 함께 방과후 사역과 여성사역을 위해 올해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 따님과 함께 은꼬페 워싱턴선교사 사역지에서 1일 VBS 와 은꼬페 초등학교 급식을 위해 학생들에게 강냉이죽을 담을수 있는 1500명개의 그릇을 선사했습니다.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에어윙 교회와 어린이 방과 후 사역과 사역자 훈련까지 감당하신 두분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기쁘하심을 믿습니다. PFA 에서는 아프리카 사역을 기도하고 계시는 선교의 동역자 모든분들의 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카톡 ID pfahuh).



은꼬페 시각장애 마을을 향한 사랑

LA에서 사업을 하시는 한 여성 사업가 PFA 후원자님께서 은꼬페 시각장애 마을에 따뜻한 사랑을 전해주셨습니다.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한 이불을 선물로 나누어 주셨고, 내년에는 ‘헝그리 프로젝트(Hungry Project)’의 일환으로 주민 500명에게 나누어 줄 옥수수까지 미리 구입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까지 어려운 형편의 고등학생들을 위해 학비를 지원해 주시며,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귀한 사랑을 꾸준히 실천해 주셨습니다.

바쁜 사업 가운데서도 아프리카의 어려운 이웃들을 잊지 않고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나누어 주시는 후원자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 여성 사업가의 작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 이곳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새누리교회 일대일 결연학생 후원회에서 Child Develop Program



아프리카에서 보낸 25년의 시간을 돌아봅니다.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쁠 때도, 힘들고 지칠 때도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없이 사랑으로 PFA와 함께해 주신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25년의 시간 속에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고, 여러분의 사랑이 있었으며,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모든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도 말라위 은꼬페에서 붉게 물들어가는 석양을 바라봅니다.

저 석양처럼 아름답게 지나온 25년의 선교 여정을 하나님께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행복한 선교사 허창식, 샌디 드림

